

8명의 노동자 죽었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생명 안전 후퇴 시키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 (서대문역 3번 출구)

○ 주최 : 민주노총·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기자회견 이후 1일차 순회 투쟁으로 SPC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약식 집회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1) 취지

- 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과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지방노동청, 검찰청 앞 등등 순회 투쟁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취지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첫 번째 일정으로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다발 기업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에서 DL이앤씨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유리 교체 작업 중 외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하청 노동자 **故 강○○ 님(29세)** 유족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 SPC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약식 집회 등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을 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기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및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전체 프로그램

①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0시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

○ 주최 : 민주노총·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 DL이앤씨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故 강○○ 님 유족 발언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 노동자 사망 DL이앤씨 규탄 및 업정 처벌 촉구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 생명안전행동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 재단 대표)

※ 기자회견 직후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규탄 선전전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② 살인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3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민주노총 경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고발 취지 발언 :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

- SPC그룹 회장 처벌 필요성 발언 : 오빛나라 변호사 (파리바게뜨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유족 고소 대리인)

- 연대 발언 :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단)

- 연대 발언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문종찬 대표

- SPC그룹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본부장

- 고발장 접수 : 기자회견 참가자

③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4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성균관대역 사거리

○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여는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노동자와 시민을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

-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단체의 문제 분석과 대책 : 한노보연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 산재예방’ 이다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저지 순회 투쟁단 (금속노조 이원재 노동안전보건 실장)

- 건설노조 산재사망 줄이기 위한 민주노조의 역할과 활동 소개 :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분부

- 학교급식,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형과 대책 활동 보고 : 금속노조 경기지부, 공공
운수노조 경기본부

- 결의문 낭독

※ 결의대회 이후 성균관대 사거리 선전전

④ 코스트코 하남점 카트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약식 집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 코스트코 하남점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서비스연맹 이현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
위원장

- 코스트코 책임자 사과 및 현장 개선 촉구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박건희 코스트코 지회장

-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등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 생명안전행동 정상민 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연대 발언 : 진보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이현심 공동위원장

※ 약식 집회 이후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선전전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⑤ 오송 참사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선전전 및 합동 분향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8시, 청주지방검찰청 앞

○ 방식 : 오송 참사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처벌 촉구 선전전

○ 선전전 이후 합동 분향소(청주시청 임시청사) 방문

⑥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대재해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앞

○ 방식 : 살인기업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⑦ 노동자 다 죽이는 세아베스틸 규탄·중대재해 방지하는 노동부 군산지청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3시, 노동부 군산지청 앞

○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4명 사망 세아베스틸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발언 :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의장

- 작업중지해제심의위 졸속 운영으로 중대재해 방지하는 노동부 군산지청 규탄 발언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순회투쟁단

-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몸짓패

- 군산지역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전북지역 중대재해 대응 체계 필요성 강조 발언 : 군산시민자치 연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생명안전후퇴 저지 투쟁 결의문 낭독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순회투쟁단
- ※ 군산 신송사거리 앞 선전전

⑧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 (목) 8시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방식 : 근로복지공단 규탄 현수막 및 피켓 시위, 현장 규탄 발언 등 선전전 진행

⑨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금) 9시 30분 울산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
- 방식 : 재벌 대기업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 지역 중대재해 사건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선전전
-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10시~12시까지 울산지검 앞 선전전 진행 예정

⑩ 경남 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집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목)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
- 프로그램
 - 대회사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3명 사망 현대비엔지스틸 엄정 처벌 촉구 : 금속노조 경남지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생명안전 개악 규탄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단
 - 문화공연 : 노래패 공연 (우창수, 김은희 동지)
 - 연대사 : 민변 경남지부 김태형 변호사
 - 마무리 투쟁 발언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

[첨부 1.] DL이앤씨 중대재해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 7건 발생, 노동자 8명 사망
 - 출처 : 8월 17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8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되풀이되는 중대재해 방지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건설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
- 2. 2022년 4월 6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굴착기와 철골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
- 3. 2022년 8월 경기 안양시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맞음 사고로 2명 사망
- 4. 2022년 10월 경기 광주시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다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하

여 사망

5. 2023년 7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는 작업 중 이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깔림 사망
6. 2023년 8월 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사망
7. 2023년 8월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1블럭에서 파손된 외부 PL 창호의 유리 교체작업 중 창호 틀이 탈락되면서 외부로 추락하여 하청노동자(29세) 사망

○ DL 이앤씨 사업장 감독 실시 (2022년 7월 21일)

- 출처 : 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7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건(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2차례)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40개 현장(위 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다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CEO)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7.19.)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 사로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 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 DL이앤씨 사업장 압수수색 및 감독 실시 (2023년 8월 29일)

- 출처 : 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36

'23.8.2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2] 피고발인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이유

※ 고발장 중 발췌

■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피고발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사 필요성

지난해 10월 15일 SPL평택공장 노동자 끼임사망사고가 발생하고 6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 피고발인 허영인 회장은 SPC그룹 차원에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5년까지 3년간 계열사에 1,000억원을 안전경영에 사용할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피고발인 (주)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8. 16.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차 샤니 성남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경영 투자 진행사항 문의에 대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2025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그룹 투자 중 180억원을 샤니 안전경영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6억원 이상 투자한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주)샤니의 안전경영을 위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그룹에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주)샤니는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C그룹은 피고발인 허영인 회장의 일가가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분 100%(허영인 회장 63.31%)를 소유하고, (주)샤니 지분 중 파리크라상은 20.34%, 허영인 외 특수관계인이 69.86%로 소유하여 사실상 허영인 회장이 (주)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11. 4. 1. SPC그룹의 계열사인 (주)SPC삼립과 (주)샤니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주)SPC삼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주)샤니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전담하고, (주)샤니는 생산법인으로 제품을 생산·공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간 사업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주)샤니의 대표이사 이강섭의 직급은 상무이고, 본 사망사고 직후인 8. 16. 박해만 (주)SPC삼립 부사장이 (주)샤니의 생산총괄본부장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주)샤니 대표이사 이강섭은 바지 사장이며, (주)샤니의 임원 인사 및 안전 예산 등이 SPC그룹 차원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여부나 형식상의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므로, (주)샤니의 임원 인사 및 안전경영의 예산 등을 결정하고, (주)샤니의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 허영인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조사해야 합니다.

3) 피고발인 허영인 회장, 경영책임자의 공범 여부 조사 필요성

만일 허영인 회장을 (주)샤니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샤니 대표이사와의 공범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신분이 없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¹⁾

따라서, 피고발인 허영인 회장이 피고발인 (주)샤니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주)샤니의 경영에 개입하고, (주)샤니의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주)샤니 대표이사에 대한 교사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허영인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주)샤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

본 사망사고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반죽 분할 공정에서 일하다가 끼임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샤니 성남공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샤니 경영책임자는 어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